논어 15편 위령공 1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不曰『如之何，如之何』者，吾末如之何也已矣！」

독음 · 자왈 불왈여지하 여지하자 오말여지하야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공자도 도울 방법이 없다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 / 如 같을 여 여

之 갈 지 / 何 어찌 하 하 / 者 놈 자 / 吾 자기 오 오

末 끝 말 말 / 也 어조사 야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